

주관 충현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6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2006년, 교회와 삶의 두 가문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마 4:17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 16:24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니, 죄인 중의 괴수(담전 1:15)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눅 15:18).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라고 말할 뿐 행동은 전혀 달랐던 바로, 발람, 아간, 사울, 유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자신이 아무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처럼 죄인인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와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요일 1:9).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십니다. 회개 없이는 죄 사함의 은총도 없습니다. 지금 즉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진리 안에서 참 자유! 말씀 안에서 참 기쁨은 오직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2006년,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새 피조물(고후 5:17)이 되어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의 증인(골 1:23)이 되길 소망합니다.

*요한(12월) 2006년 신년예배 및 제자 성화식이 주일 1부에서 5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2·3부는 전가독 예배/유니부~종동3부는 예배 후에 분반모임이 있으며, 영아·유아·유치부는 지체(예배)
*금주(4일) 구역장 영성훈련은 본지에서 수요일 예배 후 연합으로 모입니다.
*금주(4일), 2006년 겨울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본지 4월 첫째)

깨어, 이 말씀을 들으라! (금요일회)

어떠한 이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행 4:12)

수많은 관중들이 모여들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베드로는 말을 계속한다. 그에게는 성령이 충만하였다. 비겁한 갈릴리의 어부는 아니었다. 계집 종을 두려워했던 그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다. 불과 50여 일이 지났을 뿐이다. 모여든 사람들은 성경을 알고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관원들과 장로들이 있었다. 거의 모든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종교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이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종 사람들도 참여하였다. 총회장이 아니었다. 모든 신자들이 모인 자리였다(행 4:10,11). 이스라엘의 종교지도자 관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백성들에게 예수를 가르치는 전도자들을 불쌍한 것이다. 그리고 온 백성 앞에서 그들에게 묻는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질문은 정확하였다. 진실로 중요한 질문이었다. 과연 이 이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찌하여 여기에 나오는 구원자가 다한 이름만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니, 그러면 구원의 문제를 다루던 이스라엘의 종교지도자들은 왜 이 중요한 이름을 무시했는가!

“예수”라는 이름은 세 가지 면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약혼녀의 임신으로 고민하던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가(마 1:20). 그리고 천사는 요셉에게 자초지종을 풀어준다(마 1:20). 해석하여 준다. 명령한다. 그리고 이름을 주신다. 믿음이 아니고는 따를 수가 없다.

1.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단순히 그를 부르는 개인적인 명칭이다

반면에 그리스도라는 이름(명칭)은 전혀 개인의 이름이 아니다. 신학적인 의미를 가졌다(딤후 2:12). 존경하는 의미를 가졌다. 기쁨 부은 자이다(히 12:24-26).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셨을 때에 그에게 주어진 이름이다.

2. 그의 이름은 겸비하심을 보여 준다

참으로 이 이름은 아주 평범한 이름이다. 모세를 수종들던 눈의 아들 호세아에게 지어준 이름이다(민 13:8, 16; 히 4:8). 스가라 선지자가 있던 시대에 제사장의 이름이었다(속 3:1). 초대교회 시대에도 찾아볼 수 있는 평범한 이름이다(골 4:11). 심지어는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 바세산(행 13:6)과 같이 혼하게 불러주는 이름이다. “예수”와 “그리스도”에는 괄목할 만한 면이 있다. 신약성경에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서신사에서 쓰여지고 있으며, “예수”는 복음서에서 많이 쓰여졌다는 사실이다. “예수”의 이름에는 구원의 의미가

더 비중을 가지고 있는 반면, “그리스도”라는 명칭에는 존귀와 영광이 더 큰 비중을 갖게 됨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서신사에서 예수의 이름이 사용될 때에는 그분의 비천함, 겸비함이 더 강조되어 쓰였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고후 4:9-10; 빌 2:10; 살전 4:14; 히 2:9, 12, 13, 12). 베드로가 오순절에 그의 설교에서 외쳤듯이 예수는 부활과 승천으로 인하여 전적으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다(행 2:36). 그러므로 주께서 자기를 비어 영광에 이르게 된 이 길을 신약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길로 보여 주고 있다. 그런가 하면 구약은 반대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일반적인 생각으로부터 시작하여 나사렛 예수가 역사적인 실제 인물로 나타나신 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라는 이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 단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안에 놓여 있다. 즉 “여호수아” 이 말은 “주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 “예수”라는 이름은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다.

3. 그의 이름은 구세주, 세상의 구속자이다(마 1:21)

그의 이름에는 다음과 같은 계사를 품고 있다. 구원의 유원성이다. 즉 “예수만이 홀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다(행 4:12-12; 담전 2:5). 구원의 제한성이다(벧전 2:9). 그분은 오직 “그의 백성”만을 구원하시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그의 백성은 만국으로부터 온 구원 받은 자들을 말한다(요 14:6).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다(행 15:14).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는 것이다(암 9:12). 예수를 통한 구원의 범위가 무한히 깊고 넓은 것이다. 예수는 그의 백성들을 죄의 결과, 즉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구속하여 줄 뿐만 아니라 죄 자체로부터 또 죄의 무거운 짐과 힘과 그 세력으로부터 구속하여 준 것이다. 그의 백성들의 의로움뿐만이 아니라 거룩함의 근원이 되신다고(고전 1:30).

이 모든 것들이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다. 또 그의 구원의 활동에 속한 모든 내용과 제목과 목적이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영원토록 찬양할 그 모든 이유가 그 이름(예수) 안에 충만하게 있으므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꿰매 하심은 놀랍도록 정확한 말씀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께서는 그의 이름 예수 안에 담겨져 있는 이 구원의 보배를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가! 이 대답은 곧 그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칭호 안에 담겨져 있다.

MASTERFUL DECEPTION

⁽¹²⁾ But what I am doing, I will continue to do, that I may cut off opportunity from those who desire an opportunity to be regarded just as we are in the matter about which they are boasting. ⁽¹³⁾ For such men are false apostles, deceitful workers, disguising themselves as apostles of Christ. ⁽¹⁴⁾ And no wonder, for even Satan disguises himself as an angel of light. ⁽¹⁵⁾ Therefore it is not surprising if his servants also disguise themselves as servants of righteousness; whose end shall be according to their deeds. (2 Corinthians 11:12-15)

Many people within the church appear as great spiritual leaders, however, when you look at them more carefully they are really Satan. They act like heavenly angels, but are actually Satan's servants, "No wonder, for even Satan disguises himself as an angel of light"(v. 14). So many Christians misunderstand Satan. They think he looks ugly, like a terrible monster, but in the church, he comes across as a beautiful angel. The Bible tells us, "But the Spirit explicitly says that in later times some will fall away from the faith, paying attention to deceitful spirits and doctrines of demons"(1 Tim. 4:1). Certain believers who want to practice faith will find their false teachings interesting, but in the end will be far away from the faith. 1 Timothy 6:3 says, "If anyone advocates a different doctrine and does not agree with sound words, thos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with the doctrine conforming to godliness," he or she is a false teacher. False teachers do not focus on the cross, Jesus Christ, and the word of God. Instead, they like to center attention on human things, like society, culture, and community, so that Christians lose the truth. They cleverly mix human ethics and religion, making a perfect recipe that decays the human heart. Satan is very involved in the church. His presence influences its spiritual power. He specially wants to twist people's understanding of biblical doctrines. How can you discern a good teacher from a false teacher, when both appear holy, righteous, and glorious, "For such men are false apostles, deceitful workers, disguising themselves as apostles of Christ"(v. 13). How can you see through Satan's masterful deception? You have to be very careful and go back to the Bible.

False teachers love to confuse your understanding of the gospel. They talk about the importance of happiness, patriotism, worldly blessings, and good communion with all others. The real gospel talks about the cross of Christ, "For I delivered to you as of first importance what I also received, that Christ died for our sins according to the Scriptures, and that He was buried, and that He was raised on the third day according to the Scriptures"(1 Cor. 15:3&4). Jesus died for your sin, and resurrected for your eternal life. False teachers never think about their own sin; they never think about Jesus Christ as the most important thing. His death and resurrection hold little value. They know about it, but insist that success in this world is more important. They teach more than what the Bible says. I tell you that you can only be saved by faith,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Jn. 3:16)! Too many Christian pastors and theologians have forgotten the true gospel and preach a different one, one not in the Bible. Galatians 3:1&2 says, "You foolish Galatians, who has bewitched you, before whose eyes Jesus Christ was publicly portrayed as crucified? This is the only thing I want to find out from you: did you receive the Spirit by the works of the Law, or by hearing with faith?" How quickly these people lost the truth, hoping that a combination of faith (Spirit) and works (flesh) would work more easily or better. Paul says, "I do not nullify the grace of God, for if righteousness comes through the Law, then Christ died needlessly"(Gal. 2:21). False teachers always use the human conscience as a basis for

what seems right, but you cannot rely on that, only the word of God. 2 Corinthians 11:3 says, "But I am afraid that, as the serpent deceived Eve by his craftiness, your minds will be led astray from the simplicity and purity of devotion to Christ." It happens. Satan always confuses the gospel, making it complex and tainted. Please remember that the gospel is always simple and pure.

Satan wants you to hate the message of the cross. He wants you to believe that the cross is a failure, not a success. Churches do not preach the message of the cross often because their members do not want to hear it. They are trying to get rid of it in Christian society. Popular churches rather talk about community problems, politics, and professional programs. They like to spotlight the subjects of blessings, healings, and money. Everybody wants to hear other things. They are interested in receiving heaven and blessings on this earth, and desire respect and fame now. Satan deceived Peter once, "But He turned and said to Peter, 'Get behind Me, Satan! You are a stumbling block to Me; for you are not setting your mind on God's interests, but man's'"(Mt. 16:23). When Jesus talked about His crucifixion, Peter said no to the cross. Satan deceived the meaning of the cross to Peter. The cross is tough, hard, sad, and mingled with blood. It represents failure, so no one likes it. Everyone wants to make great contributions to society and become successful here. Satan is a deceiving angel, and too many Christians want to be like him. They want the angelic status, but not the cross.

Satan's servants cause conflicts between believers, "Therefore it is not surprising if his servants also disguise themselves as servants of righteousness, whose end will be according to their deeds"(v. 15). They love to make Christians separate and fight. They commend their spiritual leadership skills when division takes place. They talk about righteousness, but they themselves are not sinners. Their authority is not, but you cannot find out from them the real Jesus. James 3:17&18 says, "But the wisdom from above is first pure, then peaceable, gentle, reasonable, full of mercy and good fruits, unwavering, without hypocrisy. And the seed whose fruit is righteousness is sown in peace by those who make peace." Whoever denies themselves, stands up for the cross, and makes God's grace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ir life can discern who Satan is. Satan wants to get respect. He is a hypocrite who looks humble but is not. If you are not spiritually clear, you can be deceived like Peter, who really thought he loved Jesus Christ most, which is why he went against the cross.

My dear friend, Jesus discerns whether you are Satan or saint. If you are a saint you will go to heaven, if you are not a saint you will go to hell. Please discard your pride and be humble. Read your Bible and let the Holy Spirit speak to you, so that you can discern who Satan is and who is a saint. Satan confuses the gospel! He makes the cross a burden instead of a privilege. He does not want you to practice real faith. He stirs up arguments, so that you can fall. You have to follow Jesus clearly or you will go with Satan, who is the master of deception. 

교묘한 속임수

“¹⁰⁰내가 하는 것을 또 하라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라” ¹⁰¹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꾀술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¹⁰²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¹⁰³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고린도후서 11:12-15)



김성만 목사

말씀에 집중하라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위대한 지도자처럼 보이지만 좀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사실 그들은 사단입니다. 설사 그들이 거룩한 천사처럼 행동할지라도 실제로는 사단의 종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14절). 이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에 대해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단이 끔찍한 괴물처럼 흉하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사단은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천사처럼 가장하고 돌아다닙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였으니”(딤후 4:1). 믿음을 따라 살고자 하는 신자들 중에서도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귀가 솔깃해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디모데전서 6:3에 따르면 “누가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착념치 아니하면” 이 사람은 바로 거짓 교사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십자가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 대신 사탄의 문화, 공동체와 같은 인본주의적인 것에 온 마음을 쏟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자들은 진리를 놓치게 됩니다. 거짓 교사들은 인간의 윤리와 종교를 교묘하게 섞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릴 만한 완벽한 비법을 만들어 냅니다. 사단은 교회의 모든 일에 아주 밀접하게 관여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존재는 영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사단은 특별히 성경적 교리에 대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라면 거짓 교사와 참 교사를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꾀술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13절)는 말씀처럼, 그들 모두가 거룩하고 의롭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를 꿰뚫어 볼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짓 교사의 속임수

거짓 교사들은 복음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들은 행복, 애국심, 세상적인 축복,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복음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참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고전 15:3, 4).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께 최후의 승리를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대해 알고 있지만 세상에서의 성공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성경이 옳다고 있는 것 그 이상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 매우 많은 목사와 신학자들이 참 복음을 잃어버리고 다른 복음, 곧 성경에 있는 복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1,2는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나 내가 너희에게 다한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경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갈라디아 교인들은 믿음(성령)과 행위(율법)를 같이 행했다는 것이 더 쉽고 더 나은 것이라고 기만하면서 속히 진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단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갈 2:21). 거짓 교사들은 항상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초로 인간의 양심을 사용하지 않는데, 우리들의 양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3은 말합니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케 한 것 같이 너

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실제로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단은 항상 복음을 다른 것으로 오염시키면서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언제나 단순하고 순전합니다.

사단의 속임수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메시지를 싫어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십자가를 성공이 아닌 실패로 여기게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회중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십자가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제외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유명한 교회들은 공동체의 문제라든지, 정치나 전문적인 강좌에 대해 할 일을 더 좋아합니다. 그들은 축복, 치유, 물질과 같은 주제를 즐겨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도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듣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천국과 축복을 모두 누리는데 관심이 많고, 존경과 명성을 얻기에 급급합니다. 사단이 한때 베드로도 속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이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라 하시고”(마 16:23).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안 된다고 만류했습니다. 사단은 베드로에게 십자가가 무가치하다고 속였습니다. 십자가는 거칠고, 힘들고, 슬프고, 피로 얼룩진 것입니다. 십자가는 실패를 상징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것을 꺼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사회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이 땅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천사처럼 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사처럼 되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가 아니라 천사의 위치에 서고 싶어합니다.

사단의 일꾼

사단의 일꾼들은 신자들 사이에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15절).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나뉘게 하고 서로 다투게 만듭니다. 분쟁이 일어날 때 그들은 자신의 영적인 지체력을 발휘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은 죄인의 대열에서 제외시키집니다. 성경 그늘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참 믿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야고보서 3:17,18은 말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편에 서며, 하나님의 은총을 자신의 삶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사단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단은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그는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 위선자입니다. 만약 우리들의 영이 정결하지 않으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심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한다고 자부했던 그가 결국 십자가를 막아서서 이리저리를 뽐내고 말았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사단의 일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도인지 아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그 종착지는 지옥이 될 것입니다. 부디 자존심을 벗어던지고 겸손해지십시오. 말씀을 가까이하고 성경에서 여러분께 말씀하시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누가 사단이고 누가 성도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혼합케 만드는 자 사단입니다!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특권이 아니라 무거운 짐으로 여기게 합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는 논쟁을 일으켜서 여러분을 실족케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님만 좇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과 동행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단은 결코 만만치 않은 속임수의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천국일꾼



조홍만 (정로, 제1교육위원장)

제1교육위원회는 영아부터 중등8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중천교회의 가장 기초적인 구성원이자 앞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세대를 이끌고 갈 증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제1교육위원회 소속 교회학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다음의 방향을 놓고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가라

제1교육위원회의 첫 번째 목적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것입니다(딤후 3:15).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1교육위원회의 모든 부서는 성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에 첫 번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때가 묻지 않은 어린 생명들에게 세상을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놀라운 은총입니다.

십자가를 전하라

제1교육위원회의 두 번째 목적은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아직 어린아이들이지만 그들의 입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고백되어지는 것을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영혼에 십자가가 심어지고 보혈의 피가 흐르게 될 때 그들을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습니다(눅 10:21). 실제로 자녀 때문에 교회에 등록하게 되는 경우도 많으며, 어린 자녀의 찬송과 예배 때문에 부모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생명들이 그 가정의 전도자가 되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6년 겨울 성경학교 및 수련회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

온 천하 만민에게 나아갈 천국일꾼을 소망하며 겨울 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모든 교회학교 학생들이 오직 말씀으로 깨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 제: 온 천하 만민에게 나아가는 십자가 증인 (막 16:15)

부서명	기 간	장 소
영아부	1월4일(수)-1월5일(목)	영아부실(선교관 1층)
유아부	1월4일(수)-1월5일(목)	유아부실(교육관 201호)
유치부	1월4일(수)-1월5일(목)	유치부실(교육관 207호)
유년부	1월4일(수)-1월5일(목)	유년부실(교육관 307호)
초등부	1월4일(수)-1월5일(목)	초등부실(교육관 407호)
소년부	1월4일(수)-1월5일(목)	소년부실(교육관 507호)
중등1부	1월9일(월)-1월11일(수)	충현기도원
중등2부	1월9일(월)-1월11일(수)	충현기도원
중등3부	1월12일(목)-1월13일(금)	충현기도원

땅 끝까지 가라

제1교육위원회의 세 번째 목적은 '땅 끝으로 가는 증인'을 체현하면서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땅 끝까지 가라'(행 1:8)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전교인이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1교육위원회도 이에 적극적으로 동역하고자 교사와 학생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동참하고 있습니다. 영아부터 소년부까지는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중등부부터는 '나가는 선교사'로서 실제 선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선교현금, 선교기도회에 동참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2006년에는 300여 명의 단기선교사가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6년 선교를 위해 280여 명이 CMTC훈련을 받았고, 모든 선교훈련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교회학교 학생들이 땅 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는 증인의 사명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가 되라

제1교육위원회의 네 번째 목적은 '말씀으로 하나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매주 선포되는 위임목사님의 말씀을 각 부서에서 그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은 지식의 정도나 학력의 고하에 따라 이해하는 것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린아이들에게도 위임목사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가르칠 때 성경에서 깨닫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특히 영, 유아, 유치부는 부모들이 함께 있으므로 말씀을 선포할 때 부모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교회가 복음으로 하나되는데 모든 교회학교가 동참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학교로 오십시오!

제1교육위원회는 총 9개 부서에 440여 명의 교사들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먼저 복음으로 깨어져야 함을 깨닫고 모든 공예배는 물론이거니와 매일 새벽과 금요집회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1월에 진행될 제철학교 준비를 모두 끝내었습니다. 이처럼 교회학교를 섬기는 교사들의 마음 중심에는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기도와 실천이 있습니다. "지분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눅 5:8).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모든 교회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이 온전히 회개하고 자신을 부인할 때 주님께서 제1교육위원회의 어린 생명들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은총을 가정과 학교, 땅 끝까지 전파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은총이 살아 있고 참 진리를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교회학교로 여러분의 자녀를 보내 주십시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전하는 은총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막 16:24).

예수님 손을 꼭 잡고!

단기선교로 고민하던 저에게 주께서 친히 "가라!"고 말씀하셔서 확신을 가지고 첫 선교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나가는 선교라 될 준비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저에게 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준비과정에서 고난이 닥칠 때 저가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아셔서 예쁜 찬양대와 돌로소에서 많은 지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습니다. 지금은 학생회에서 새로운 89 동기 지체들과 하나님을 섬기도록 8명의 믿음의 친구들을 제 곁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한 것을 늘어 쓰려면 끝이 없습니다. 아직은 말씀 속에서 깨닫는 바도 적고, 기도도 서툴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조금씩 조금씩 채워 주실 것을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의 마음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기쁨과 감사로 넘칩니다.

제게 2006년도를 허락하심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믿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을 때는 하루하루 건강하게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봉사하면서 건강 잃어는 하지 못함을 알기에, 또 그 건강함을 주시는 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임을 알기에 저는 2006년도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실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2006년도에, 2007년도에, 그 후에도 계속 하나님과 저와 함께 하실 테니까요. 2006년도에도 날마다 '아멘'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기도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은혜(교동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금요집회 때마다 항상 비슷한 선교보고를 들으면서 '저렇게 할 말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했었다. 하지만 선교를 다녀온 지금, 나의 선교 소감을 역시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심으로' 성령남께서 함께 하셨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음을 깨달았다. 우리 팀은 원래 계획한 사역지에 있었지만 다른 곳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현지 선교가 어렵다는 정보가 있었기에 우리는 계획과 다른 전도 방법을 준비하였다. 하지만 성령님은 그 땅을 사랑하고 계셨다. 둘은 손잡인 현지 크리스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 전도에 열정을 갖게 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다.

통역이 없고 운전기사도 영어를 못 하여서 하루는 전날 사역지와 반대 방향으로 가자고 손짓 발짓과 잘 모르는 현지어를 동원하여 설명하였지만 운전기사는 전날 갔던 곳의 바로 옆 마을에 우리를 데려갔다. 우리는 불행으로 전도를 시작하였지만, 전날보다 더 많은 영접자를 만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만나지 못한 준비된 영혼을 안타깝게 보시고 우리를 그 곳으로 보내셨던 것이다. 그때 선교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임을 다시한번 깨달았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설명하고 있을 때 성령님은 벌써 그 곳에 와 계셨고 우리에게 그 땅에 십자가가 세워지리라 믿는 확신을 주셨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님께는 강하다.' 승리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승리한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온전히 성령남만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 사역인 것이다. 매일 15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영접 기도를 드렸고 하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한 자들을 위한 잔치가 열렸을 것이다.

윤인준(집사, 10교구)

이 영혼을 위해서

선교지를 향해 갈 때마다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하는 떨림으로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조를 편성해 축회전도를 나가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예비된 영혼이 영접하였고 강하게 반대하는 현지인들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라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듣지 못하는 그들의 영혼이 안타깝기만 하였습니다. 다음 날 축회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집에 들어가자 "여기는 우리들의 집단촌이니 다른 곳으로 가라"고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전하자 성령남께서 예비해 놓으신 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영접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 영혼을 위해서 우리를 이곳까지 보내셨군요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통로로 삼으셔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여 눈물을 흘리며 우리는 기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본 적이 없고, 문 위나, 방구석에 나뭇잎, 가시나무를 매달아 놓고 그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 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 역사하였습니디. 그들은 우상을 치워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상을 치우자 방 구석구석의 우상을 자기들의 손으로 치웠습니다. 맑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운동력이 있어 관절과 골수를 찢어 그들의 마음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심을 확실히 보았습니다. 눈물 맺힌 영혼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천국에서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박재순(집사, 7교구)

새가족부를 수료하며

어두움에서 빛으로!

우리 집은 교회에서 5분도 안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여기 교회에 오기까지 66년이 되었습니다. 저의 가정은 철저한 유교 집안으로 하나님은 우림의 출수로 있던 제게서 모든 부와 명예를 빼앗으며 저를 불러 주었지만 저는 우교를 버릴 수가 없어 하나님을 무시하였습니다. 이제 여백까지 내 중심으로 삼았던 것을 회개하며 예수님을 주안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림의 자손인 제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김규남)

교회에 나오면서 순접과 가족회의 생활 기도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사와 행해오면서 내 마음에 쌓인 부정적인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정규현)

불교도로서 약 40년 동안 7개의 절을 돌아다니면서 부처를 섬겼는데 이제는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벌써 2년 전에 교회에 등록했지만 그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던 것이었기에 새가족부에서 영육을 받아 하나님과 살아 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것이 다 변화가 되어 정말 진심으로 행복하고 기쁩니다. (정문자)

친구가 선교 기아에 빠진 한 반반을 도와달라고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한 반 오게 된 것이 영원이 주 안에 있게 되어 기쁩니다. 4개월 전만 해도 거의 매일 술을 먹던 밤을 새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술이 끊어지고 이제는 거의 안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끊지 못 해도 교회 계속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 정말 감수합니다. (서민수)

그 동안 교회에 다녔으나 다시 출교하고 와서 새가족 교육을 받으며 주님께 대해 깨닫게 되어 감수합니다. (지재근)

아내와 함께 양육부에 등록하여 다닌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처음 천주교에서 개종을 안 아내가 교회에 적응하기 힘들다 봐 같이 다녔는데 오히려 제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디. 이제 다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정 병)

모든 신앙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주님을 외면하여 지내다가 10여 년 만에 교회에 다시 나왔습니디. 그 동안 저를 기다리시고 다시 불러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나약한 때마다 강단이 있어 2장 20절 말씀을 떠올립니다.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을 확신합니다. (손지연)

믿음이란 영적 싸움과 같습니다.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괴롭힘처럼 따르는 어둠의 마귀들이 또한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을 그리자를 빛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김연주)

6개월이 짧은 시간이 아쉽게도 불구하고 늘 항상 함께 동역해 준 남편, 또한 그런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바라봐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김은정)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김광자)

새가족부를 통해 하나님과 또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수료하였으니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정 술)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김은진)



나를 도울 이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라고 생각할 그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수진)

저는 율례의 권유로 나왔는데 새가족부 과정 중 여러 수업을 하며 새가족부에 많이 참석하지 못한 것이 아쉬웁니다. 앞으로 더 주님을 많이 알고 싶습니다. (김유배)

또한은 성탄절에 새가족부를 수료하게 된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며 하나님의 기쁨을 얻고 싶습니다. (조창인)

6개월 과정을 자녀들과 함께 하기 위해 8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언제까지나 주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 가고 싶습니다. (이희연)

예수님이 살아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삶이 달려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박연숙)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새가족부를 수료하게 되어 기쁩니다. (전근배)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제 가슴 속에 확신합니다. 또한 성령남께서 제 마음 속에 임하시어 앞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경숙)

저를 아파를 따라 별 생각없이 나왔는데 나와서 애를 먹고 기도하 하더 보니 정말 주님께서 저의 가족을 인도하시고 불완전한 저의 마음도 잡아 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만하)

제 마음에 평안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기쁨으로 새가족부를 수료하게 하신데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되던 가장 먼저 기쁨하고 행복한 몸이 되어 되었습니다. 교회로 저의 감동을 인도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발꿈치에 정말 기뻐하겠습니다. (김연숙)

성탄절에 수료한 것이 정말 기쁩니다. 제게 일할 수 있는 6월의 시간을 주시고 주일을 허락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데 감사드립니다. 저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근명)

(정리: 편집실)

내 입에 꿀과 같은 일주일

학교에서 축구를 하다가 상대편 골키퍼와 부딪히면서 넘어졌습다. 어느 때처럼 푹푹 털고 일어나 계속 뛰었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오른쪽 무릎에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육이 살짝 놀란 것이지' 하고 말았는데, 무릎의 통증이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날 밤 통증이 너무나 심해서 응급실에 갔는데 MRI를 찍고서 아무 무릎 염증이 금이 가서 수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리 평소처럼 축구하다가 넘어진 것뿐이었는데, 수술까지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 동안 운동을 하면서 수없이 넘어지고 구르고 했었는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아무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학교에도 못 가고 혼자 집에 있으면서 말씀을 더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게 모습을 회개하였고, 다시 주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만약 다리를 다치지 않았다면 결코 없었을 그 일 주일이 '주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내 입에 꿀과 같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나만 다쳤을까? 그리고 수술을 해야 할 만큼 심하게 다쳤을까?' 하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러나 비록 수술을 해야 하고 학교에도 못 가고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있었지만, 제가 주님께로 다가가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임을 깨달으니, 불평은 사라지고 오히려 감사로 찬탄했습니다.

그 주간 금요집회 때, 병든 자를 위한 기도의 시간에 저는 다리를 절며 앞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다리를 붙잡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과 함께 '주님의 뜻이라면 수술하지 않고 나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간절히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날도 기도를 드리는 바로 그 순간 다리에 마스함이 전해졌습니다. 교회에 갈 때만 해도 절뚝거리며 겨우 걸었는데, 집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올 때는 통증이 약간 있었지만 거닐만해질 것 같아 나을 그름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총입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시길 위해 저 다리를 다치게 하셔서 나게 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두 다리로 땅 끝까지 나아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그릇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요섭(11교구)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나"(마 26:21)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의문이 든다.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이 이미 계획된 것이라면 유다는 예수님께 이용당한 것이 아닌가. 책임은 시나리오를 쓰신 하나님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과연 우리의 책임임.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 속에 의문을 함께 품기 시작했다. "온전히 선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어떻게 악이 존재할까?",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전적인 주권)라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마음 속에 드는 여러 가지 의문들을 풀고자 책을 찾아보기도 했고, 같이 고민도 해 보았지만 합리적인 답을 찾지 못하였다. 풀지 못한 의문들은 생각 속에 남아 믿음을 불안하게 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금요집회 말씀을 통해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알게 해 주셨고, 앞으로 가야 할 확실한 믿음의 길도 깨닫게 해 주셨다.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서 뚝뚝해 보이려고 했던 나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생각해 볼 때 참으로 부끄러웠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시 73:22).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굴복히 여기셨고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게 하셨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알았던 관념 속의 하나님이 아닌 동방박사들이 실제로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려 주셨다. 그리고 절단하였다. 말씀 앞에서 교만하고 거짓된 마음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해지기로, 이제는 정말 하나님과 나 자신을 속이지 않기로.

그러나 나의 의로는 할 수 없다는 것 또한 말씀을 통해 알려 주셨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한 편엔 항상 거짓되고 꾸밈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끊임없이 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또한 말씀 가운데 매일 나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나라 가는 날까지 인도하시리라 믿는다(시 73:24).



김지혜(대학부)

새벽에 나를 깨우신 이유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임과 그 은혜로 자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던 나를 발견하게 하신 은혜가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오늘 새벽에 드리게 하셨습니다.

결론 전 "절하는 애도 새벽 기도는 절대 못한다."라며 오연장담을 하고 다녔었고 금요 철야를 위로 삼아 굳이 새벽 기도까지의 열심은 부리지 않아도 된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던 차 결혼하고 가정생활에 적응하기 바빠 새벽 기도는 고사하고 금요집회조차도 참석 못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늑히 예배를 회복케 하셨으나 여전히 새벽 기도는 나와의 별개의 문제였다. 결론 우 신앙 생활에도 서서히 자리가 잡히면서 지분은 받게 되었다. 갑자기 늘어난 교회 일로 바빠지면서 나는 스스로를 신앙 생활을 잘하는 양 위로하며 살고 있었다.

그런데 계속해서 뭔가 여전한 생각이 들었고 내 영혼의 답답함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조영이 묵상하는 시간을 소망하게 되었다. 남편과 아이를 유치원 보낸 후 잠깐의 아침 시간에 위로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 자주 보여 주셨고 들려 주셨다. 그러나 끝까지 "새벽 기도까지는..." 하면서 외면하고 있을 때 친구를 통해 강한 질책을 주셨고 마치듯 애 새벽 기도를 절단하게 하셨습니다.

그 친구의 모닝콜을 받으며 시작한 새벽 기도는 첫날부터 하품으로 시작했고 하루가 힘들었다. 그러면서 머리 속에서 하지도 않는 철야를 들먹거리며 "역시 난 철야 체질이야."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성실하신 하나님은 매일 나를 깨우셨고 임팩트를 일어난 친구와 같이 교회에 가면서 신앙의 교제까지 나누고 있을 때면 하나님께서 새벽에 나를 깨우신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아직까지도 새벽에 온 입과 마음을 다해 기도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지금 내 마음 속에서는 새벽 기도에도 대한 소망이 자리잡고 있다. 때론 졸고 올 때도 있지만 차가운 새벽 바람을 맞으며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자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은 예배하시리라는 것을 나는 안다. 외마치면 절단된 나의 내 입으로는 새벽 기도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선 그 누구보다도 나의 연약함과 게으름 그리고 나의 모든 상황과 성격을 아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아나셨다면 새벽 기도에서 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말씀과 기도만으로 시작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오늘도 새벽 미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울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신 모습을 나의 가슴 속에도 담아 보며 그분을 닮아 가기를 소망한다.

이해경 (집사, 청년 2부)

믿음으로 받은 말씀

돌이켜보면 건재한 지난 한 해 매주 금요일은 말씀 때문에 행복할 날들이었다. 특히 하나님은 위임목사님을 통해서 다루기 어려운 주제들을 오직 말씀으로만 풀어주시기에 더욱더 큰 은혜가 있었던 것 같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믿음과 함께 모호하여서 분명히 이해되지 않고 드러내어 설명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내게 있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위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 말씀 중에 정확히 짚어 맞춰지지는 않는 부분들을 짚어맞추고도 노력하거나, 이해되지 않거나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부분들을 이해하거나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기 위해 그대로 인정하고 믿어내는 것이었다.

나에게는 적잖은 충격이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이었던 그러한 부분을 그대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한 주 주 말씀을 들으며 들을수록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과 그분의 긍휼과 사랑으로 인한 오묘하고 놀라우신 섭리가 나의 마음과 내 삶을 가득 채웠다. 정말로 가득 채웠다.

참 신실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은 기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계시된 것도 기적이다. 시간과 공간에 갇혀진 유한한 인간이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도 기적이다. 이 놀라운 기적이 나에게 위해 깨닫게 된 것도 기적이다. '주님, 주님의 사랑이 제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스스로는 할 수도 없고 빠져나올 수도 없는 죄에서 건져 주었고,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어 천국길을 걸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나의 죄 원한을 하나님께 맡기며 아버지와의 사랑은 더욱더욱 축광할 수 없이 제게 커집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권에스터(청년 1부)

교회탐방 92 루디아 전도회 (교구)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전도회

가정을 잘 돌보는 일과 신앙 생활의 균형을 잊지 않으면서도, 늘 두 가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주와 여인들이 있다. 교구 루디아 전도회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5교구 루디아 전도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우면, 양재, 개포, 일원, 수서에 살고 있는 마흔 살부터 한 살에 이르는 여성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약 스물다섯 분 정도와 회원이 적극적으로 전도회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계십니다.

(전재숙 집사, 회장)



여가 바쁘면 새로운 각오들을 하지요. 2006년도 전도회의 목표는?

우선 전도에 열중하자라는 것입니다. 벌써 늦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정리하고 전도에 전력 투구할 생각입니다. (서옥선 집사)

지난 해에는 애드벌룬 연합하여 수서동의 독거 노인을 섬기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올해도 역시 교구 내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김연정 집사)

전도 사례를 소개해 주십시오.

전도할 때, 이아오신 분이 교회를 찾고 있어서 그분을 교회로 인도하였습니다. 전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면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이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습니다. (백애순 집사)

전도 중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실까요?

전도는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는 순종하여 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할 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느낍니다. 재 발견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영희 집사)

전도하려 가서 사람을 못 만나면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이것 역시 은혜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서옥선 집사)

전도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전도자는 누구나 참 떡을 가지고 가서 전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의지하려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전재숙 집사)

전도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셔서 회원들 간에 올바른 관계가 성립되어 불신자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전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연정 집사)

전도인으로서 개인적인 삶의 모습은?

내 삶을 통해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의 사소한 부분까지 다스림을 받고 싶습니다. (이영희 집사)

당장의 열매가 없어도 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으로 열심에 전해야겠습니다. (백애순 집사)

십자가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서옥선 집사)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공급받아야겠습니다. 은혜를 공급받는 통로는?

근교집회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질로 뜨거워져서 마음이 열립니다.

(이영희 집사)

평소에 잘 안 부르는 찬양을 배우면서 은혜를 받지요. 금요찬양 때, 배운 찬양을 집에서도 열심이 부릅니다. (백애순 집사)

찬양을 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열리면 말씀이 들어옵니다. (김연정 집사)

근교집회를 통해 십자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습니다. (서옥선 집사)

회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복음에 빛난 자로서 전도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사도 바울의 열정을 본받아 겸손한 믿음으로 열심이 전도했으면 합니다. (전재숙 집사)

주의 일을 하기 위해는 기도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한다. (편진실)

2006년 예배 감동



찬 34장 전능왕 오셔서

영국에서 시작된 찬송가로서 가장 유명한 찬송가 중의 하나이다. 1757년 찰스 웨슬리(Charles Wesley)의 '예수여 당신이 불쌍히 여기시는 눈'이라는 찬송과 더불어 삼위일체에 대한 찬송이란 제목으로 처음 인쇄되어 나왔다. 이 때문에 100년 이상이나 찰스 웨슬리의 찬송으로 알려져 왔으나 지금은 작자 미상의 곡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이 찬송을 아주 자주 부르지만 이 찬송이 삼위일체 찬송이라는 사실을 알고 부르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이 찬송의 1,2,3절의 매 첫 줄은 각기 다른 신학에 대해서 간구하고 있고, 마지막 4절은 삼위일체 되시는 위대한 하나님께 기원하고 있다.

1절은 하나님 아버지여 전능왕이신 성부 하나님께 그를 찬송하도록 도와 달라는 간구다. 마지막 줄은 다니엘 7장 22절에 나타난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 분(Ancient of Days)]이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보이심을 말해 주고 있다. 그는 항상 계시고 알오로든 계시 보이심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2절은 성자 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으로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다. 그리스도가 저물에는 우리의 구주로우 오셨으니 그가 다시 오실 때는 삼천주로 오실 것을 찬양한다.

3절은 보혜사 성령이신 하나님께 대한 간구이다. 여기서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을 말함하는 것으로 중재자, 변호사, 위인을 주는 분임을 뜻하며,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이땅에 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3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일은 성령이 하심을 알게 하고 있다. 즉 하나님의 영은 전능하시나 우리가 그를 모시지 않아,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4절은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신 성령을 설명하고 있고 그를 찬양이 찬송한다는 아름다운 찬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위일체의 진리를 우리의 언어와 찬양으로 다 찬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2006년 예배 찬송으로 우리는 전능왕 되시는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그분의 통치 아래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복음을 전하는 총현의 모든 성도가 되자. (찬양위원회)

새 가 족 을 만 영 합 니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	이이다	19	외선부	박영옥(6)	24	한주귀	19	외선부	박영옥(19)
2	홍재근	10	장년1부	최지훈(10)	25	홍겨	19	외선부	박영옥(6)
3	민	19	외선부	조영구(6)	26	백관용	19	외선부	박영옥(19)
4	이영덕	1	소망부	박순덕(1)	27	정정현	19	장년1부	전혜선(14)
5	하이	19	외선부	이유진(14)	28	황윤모	1	장년1부	황경선(1)
6	손병숙	6	장년1부	이진규(6)	29	박경래	19	고등부	김남욱(1)
7	김교이그	19	외선부	김향진(17)	30	문예리	1	청년1부	
8	비이	19	외선부	자르길(19)	31	정명환	12	장년1부	이정선(12)
9	이도형	19	청년1부	이진규(6)	32	황선욱	19	청년1부	한선미(19)
10	가나	19	외선부	자르길(19)	33	송호준	19	청년1부	이옥재(4)
11	양다혜	19	고등부		34	변익수	16	청년2부	
12	서안	19	외선부	윤해근(14)	35	한복순	16	소망부	
13	라자	19	외선부	김진순(6)	36	조영화	6	청년2부	박양민(6)
14	구미르	19	외선부	최정숙(14)	37	윤두환	4	장년1부	신동후(3)
15	손나	19	외선부	배남현(10)	38	김성무	8	소망부	김민희(10)
16	나신	14	외선부		39	이수연	19	대학부	은필재(10)
17	박현진	19	예배대부	신성철(19)	40	썬	19	외선부	조영문(1)
18	류부수	19	외선부	이영환(2)	41	백	19	외선부	조영구(6)
19	김진성	19	청년1부	권정희(11)	42	썬	19	외선부	김지선(7)
20	윤찬준	19	외선부	안석현(3)	43	엘자	19	외선부	태영재(11)
21	임원민	19	청년1부		44	부기여바	19	외선부	김철현(11)
22	이소파	19	외선부	박영옥(19)	45	오무니	19	외선부	김석영(7)
23	민연희	19	외선부	이은희(7)	46	이은진	19	중등3부	이정훈(1)

※ 중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